

4대강 수질관리 · 항공기 위탁 문제점 질타

세방산업 발암물질 저감 · 섬진강 재첩 등 지역현안엔 ‘관심’

■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문제, 가축분뇨, 항공감시 등을 질타했다.

그러나 광주 세방산업 발암물질 감소와 섬진강 재첩 감소 대책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유역환경청 등 8개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과 8월에 드론으로 촬영한 영주담 영상을 보이면서 “7월엔 녹조가, 8월엔 소위 ‘똥물’ 처럼 물이 검게 변했다”며 “수자원공사도 대책을 세우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는데

환경부는 뒷집지고 있는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이에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와 달리 예측 못한 상황이 나와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수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방산업 발암물질 감소 사례를 거론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이철갑 세방산업 TCE 배출대책검증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강 의원은 “세방산업이 TCE를 9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냐”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발암물질 1위로 발표되면서 세방산업 내에서는 역을

하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위법행위도 없었고, 사실대로 신고했는데 신고한 기업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대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비록 법률 위반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하고 1년 매출 670억원 중 40억원을 투자했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게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세방산업이 지자체와 주민 등의 문제제기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발암물질을 90% 감소시킨 것은 모범 사례다”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노

력을 추켜세웠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유역환경청들은 2인승 항공 감시용 항공기를 통해 2~3시간씩 하늘에서 강과 유역을 감시한다”며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무지개세상’이라는 업체에 하청을 줘 이를 독점해 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10년 간 감시일지를 보니 단 하나 안 바뀌고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며 “감시한다면서 사진 한 장 없고, 항공기에 환경감시원이 아닌 조종교육생을 태우고 사실상 관광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청장도 ‘이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청장도 없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청장들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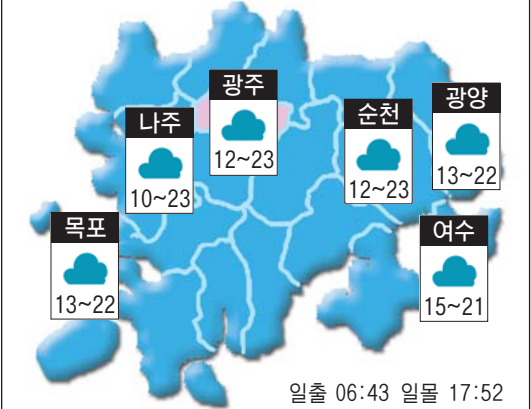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섬진강 하류의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해 하

동지역 재첩 피해 문제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섬진강 상류에서 각종 용수를 많이 배분하다보니 하류에 하천유지용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염도가 높아져 하동지역 재첩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넘게 어민과 하동군이 백방으로 진정과 호소를 하고 있지만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의 협조가 되지 않아 난관에 처해 있다. 영산강유역청과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병욱 영산강유역청장에겐 “하동군민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물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많지 않다”며 “환경영향조사와 하동군에서 건의한 것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유형동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0~22	흑산도	15~19
담양	10~23	구례	9~22
화순	10~23	곡성	9~22
영광	11~22	완도	14~23
함평	11~24	강진	11~23
무안	11~22	장흥	10~23
영암	9~22	해남	10~23
진도	13~22	고흥	12~23
신안	13~22	보성	10~21

목포	만조 02:20 14:44	여수	만조 09:23 21:29
	간조 07:33 19:54		간조 02:56 15:21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김대중 구속·지역차별 반발”

당시 미국언론 “80년 5월은 폭동” 보도 기념재단 “민주화운동 본질 파악 못한 것”

미국 언론 매체들이 80년 5월을 김대중 체포와 지역차별에 분노한 시민들의 국지적 폭동으로 보도하는 등 ‘민주화운동’이라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19일 5·18당시 미국의 언론매체들의 보도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6월 말까지 한달여동안 New York Times 과 Washington Post, Associated Press, News Week에 실린 190건의 기사를 분석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최용주 5·18재단 비상임 연구원은 “당시 미국매체들의 광주항쟁 보도는 광주항쟁이 발발하게 된 한국 고유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보다는 카터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한정책의 관점에 의존해서 보도했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안보를 명분으로 전두환 신군부를 군사·외교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었던 카터 행정부는 광주항

쟁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지역차별 등에 불만을 품은 광주시민들이 일으킨 ‘국지적’ 폭동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했다”며 “광주항쟁 이후 미국 언론이 염려했던 부분은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책임론과 이로 인한 ‘반미주의’의 확산을 두려워한 매체들이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매체들은 광주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수부대의 유혈진압에 있음을 명시했다. 특히 북한 개입설을 일축하는 등 ‘사실’에 근거해 취재하는 노력을 많이 보여줬다”며 “광주항쟁 이후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점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주류언론 매체들의 광주항쟁 관련 기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광주항쟁의 진상 규명과, 왜곡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길용현 기자



대한민국 국향대전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가을 나들이 나온 어린이들이 국화사이를 거닐고 있다.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국화향기 가득한 함평으로’를 주제로 20일부터 11월5일까지 열린다. /김태규 기자

무안경찰, 전남도청 압수수색

‘노조홈피에 특정한 비방글’ 관련 조사

경찰이 전남도 공무원노조 사이트에 특정한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나섰다.

무안경찰서는 19일 전남도청 통신실의 중앙 서버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남도공무

원노조 홈페이지에 특정한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고소가 접수돼 이뤄졌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노조 홈페이지에 특정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고소가 접수, 수사에 나섰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싶어서...”

정신병원 탈출 살인미수범 검거

북한에 있는 아내가 보고싶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가 78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8월경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유대준씨(48)를 18일 새벽 6시 3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의 원문촌의 한 옥탑방에서 생활했던 유씨의 은신처에서는 구멍조끼와 오리발, 스노클링 마스크가 발견됐다. 발견된 구멍조끼 등은 북으로 도망치기위해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씨는 경찰과 교정당국 조사에서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우발적으로 달아났다”며 “북으로 보내달라. 국정원이 나를 못 가게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전자발찌를 부수고 달아난 유씨는 하루동안 산속에 숨어있었다 다음날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이를 위해 도주 2주전 현금 100만원을 인출, 사전에 병원을 탈출할 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북으로 넘어가기 위해 월미도 등을 답사하는 등 휴대전화를 통해 입북 관련 내용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점을 두고 국가보안법위반(탈출예비)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유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36분께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나주의 한 정신병원을 탈출해 달아난 뒤 행방이 묘연했다.

그는 2004년 이북동생을 흥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토공, 석공

(주)태산종합조경은 대한민국 조경 대표기업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님들과 함께합니다

(주) 태산종합조경
나주시 왕건로 10
대표이사 이철배
Tel. (061) 333-8115 FAX. (061) 333-9115

• 순천만국가정원 - 화훼연출사업

• 강진 영동농장 - 월정공원 조성공사

• 다도 문성암 - 방문자 돌계단설치

http://www.party-food.co.kr

“음식출장 행사 25년 전통”
파티외식산업

칠순잔치, 팔순잔치, 아외결혼식, 성당교회 결혼식 전문업체 / 시내, 시외 출장 뷔페 전문

음식물 고객 배상 화재보험 10억원 가입업체

단체도시락 제조 납품, 단체식사 병원 / 기업체 / 학교 구내식당 - 위락운영, 위탁급식
※ 식탁, 의자, 회갑 - 칠순 상차림, 케익, 프랑카드 서비스 함. ※ 행사장비 지원 (밴드, 사진, 비디오, 각설이 출장 가능함)

전문 파티 플래너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무료상담전화 080-226-0085 / 010-4601-3222

※ 소량이라도 약속한 시간전까지 배달납품 합니다.